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0, 마가복음 5:21-6:6, 야이로의 딸, 집에서의 배척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마가복음 5:21-6:6, 야이로의 딸, 집에서의 거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을 계속 읽을 것이지만, 그 전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군단 귀신 들린 에피소드에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간략한 메모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이방인과 처음 만난 것이었고, 아마도 이방인이 복음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켈리 아이버슨은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녀는 이방인 캐릭터, 또는 캐릭터 그룹을 추적했고, 잠재적으로 이방인과 관련된 11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 옆의 군중이 마가복음 3장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방금 마가복음 5장에서 본 게리심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7장의 시로페니키아 여인, 바로 그 뒤의 마가복음 7장의 귀머거리, 마가복음 8장의 4,000명을 먹이는 것, 마가복음 8장의 나중에 나오는 눈먼 사람, 마가복음 9장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물론 빌라도, 군인들, 십자가에 매달린 로마 군인들, 키레네 사람 시몬, 마지막으로 백부장입니다.

이들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각각 독특합니다. 예수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이것들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에피소드가 정확히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소개된 이방인 캐릭터는 나중에 내러티브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12명, 종교 지도자, 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했지만, 이방인 에피소드는 독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가 복음서에 넣을 내용을 선택적으로 선택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마가가 이방인 인물을 제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획일성이나 적어도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고정관념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인물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개별적이지만, 이방인에 대한 전형적인 제시는 긍정적입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긍정적인 빛으로 표현됩니다. 빌라도를 생각해 보더라도, 마가복음의 빌라도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종종 어떤 형태로든 절박함을 보이고, 예수께서 채우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필요성을 보입니다.

아마도 병, 질병, 악령에 사로잡힘, 또는 다른 신체적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때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악령 들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9장에서 귀신 들린 소년, 제자들은 그것을 행사할 수 없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심각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이방인,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라다닌 무리가 있습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 귀머거리, 눈먼 사람, 그들은 모두 절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절박함은 더 깊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서 믿음을 봅니다. 복음에 나오는 많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신뢰에 대한 믿음이 발견되며, 행동과 행위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의 반응은 특정 유대인들의 반응과 매우 유사하며, 종종 예수를 거부하는 많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왕국의 신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보이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의 비유 중 하나를 설명을 듣지 않고도 듣고 이해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주어집니다. 귀머거리와 눈먼 사람, 이방인 귀머거리와 이방인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15:21에서 키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는 마가복음 8장에 제시된 제자도의 모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본질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백부장은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교정이나 침묵도 없이 이해한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필요가 있고, 같은 필요, 비슷한 필요가 있으며, 예수님도 그 필요를 돌보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수난 이야기 이전에 언급된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연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해되는 이스라엘의 외부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고치고, 먹이고, 귀신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유대인 본토에서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의도적으로 이방인 땅으로 여행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는 최근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불순종을 봅니다. 세 번이나 이방인들의 어느 정도의 불순종을 봅니다. 예를 들어, 7장에서 귀머거리를 고친 후에 이방인 무리는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의 불신 속에서 이방인들은 또한 어떤 종류의 메시아적 선포를 하는 첫 번째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불순종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간음하는 세대라고 불리는 그룹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8:12에서 유대인들과 비슷한 위치에 놓입니다. 10:42에서 45장까지 이방인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의 대조와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 사이에서 발전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꾸짖고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 곳을 봅니다. 물론 빌라도는 궁극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난 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악령 군단 엑소시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역할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방인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추진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5장 1-20절에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하나님의 왕국의 움직임이 있고, 이제 회복된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지시를 받는 사명에 대한 암시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백부장이 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성전의 정화나 저주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지도자들이 “내 집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지만 너희는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난하실 때,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에서 “내 집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민족을 위한 부분이 없습니다.

기도의 집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마가는 우리가 전체 인용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은 민족을 위한 것이며, 이방인을 환영하고

포함시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에서 이방인의 반응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나은 것처럼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겪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가십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적어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방식으로 메시지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자면, 개들이 부스러기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마가복음의 끝에서 그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부스러기를 떨어뜨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들 스스로가 아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과 이방인들을 살펴볼 때, 저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삽입, 즉 마가복음 샌드위치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이야기의 중간에 두 번째 이야기가 완전히 전달되고,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 샌드위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예수의 가족과 베엘제불과의 논쟁, 그리고 예수의 가족으로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만큼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두 개의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기,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가 와서 그녀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설명이 있고, 그 다음 출혈성 질환을 앓는 여자의 이야기와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여 중단됩니다. 여러 면에서 여전히 하나의 이야기로 기능하는데, 출혈성 질환을 앓는 여자의 사건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할된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야이로의 딸과 출혈성 질환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에 공통적인 믿음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 고통받습니다. 어린 소녀는 12살입니다. 두 에피소드 모두 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의식적 불순함, 여자의 피와 출혈 장애, 그리고 소녀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사회의 유대인 남성 지도자, 예수에게 온 회당 지도자입니다.

다른 한 명은 가난하고, 버림받았으며, 의례적이고, 불순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흥미로운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읽는 대신, 저는 이야기 1을 시작해서,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피를 흘리는 여자를 보고,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호수 한쪽에서 이런 광경을 보았고, 그분은 호수를 건너셨고, 폭풍이 있었고, 그분은 반대편으로 가셨고, 거기에는 귀신 들린 군단이 있었고, 그분은 떠나셨고, 이제 그분은 다시 건너셨습니다. 그분이 호수에 계실 때 많은 군중이 그분 주위에 모였고, 이것은 다시 그분의 인기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 중 한 명인 야이로가 거기에 왔습니다.

충분히 흥미로운 점은 지금, 지금 회당 지도자, 회당 통치자는 회당의 관리자였고, 아마도 예배가 질서 있고 회당의 기능이 적절하도록 보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외부에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서 그에게 필요를 간청하기 위해 오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한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전면적인 거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이곳에 올 때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의 인지도와 인기를 말해줍니다.

충분히 흥미로운 점은 기적 이야기에 개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기적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대개 사건의 상태였고,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고, 마비된 사람, 눈먼 사람, 귀머거리 사람 등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관련된 개인의 이름인 야이로를 얻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매오만이 개인의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제 이것은, 제 말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사적으로, 당신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이름은 기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억되는 인물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청중은 야이로나 어떤 연관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사건의 역사성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캐리커처가 아니라 특정 개인입니다. 아마도 그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놀라운 본질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안정한 사건이어서 관련된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예수를 보고, 그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야이로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간청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회당장이 회당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의 발 앞에 간청하고, 그의 발 앞에 무언가를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손을 얹어 그녀가 치유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이제, 야이로와 그의 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중단됩니다. 우리는 이 피 흘리는 여자와 함께 이 이야기의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얻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와서 에워쌌습니다. 거기에 있던 한 여인은 12년 동안 출혈을 앓았고, 많은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가진 것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의 이 여성의 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는 그녀가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상태는 일종의 월경 출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며, 그것은 그녀를 의식적으로 더럽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종교 생활의 일부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난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이것에 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본성이 있었고, 그녀의 모든 돈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성공은 없었습니다. 제 말은, 이 설정 중 하나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루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루크는 의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거론되었고, 여기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루크가 자신의 직업을 폄하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항상 농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가가 그녀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가난하고, 여러 면에서 소외된 외부인인 이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는 군중 속에서 그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옷을 만져서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흔한 생각이나 미신이 아니며, 어떻게든 그 힘이 이용 가능하고 어떻게든 옷에 주입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손수건, 사도행전, 베드로와 그의 그림자에서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만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망토를 만지면 치유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녀의 출혈은 멈췄고,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다른 기적 이야기와 비슷하게 즉각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아무도 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의 망토를 만진다. 그녀는 즉시 온전해진다. 하지만 다른 기록, 다른 기적, 심지어 야이로처럼 그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자신의 걱정을 알리고, 필요를 알리고, 믿음에 대한 근육질의 반응을 보이며, 마비된 사람을 내리기 위해 지붕을 뜯어내는 등의 일을 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즉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고, 군중을 돌아보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질문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물려드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 누가 만졌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예수는 누가 그랬는지 보기 위해 계속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미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예수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마음에 대한 신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그림은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놀라서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그 순간을 멈추고, 이 여인이 그녀의 믿음을 힘차게 보여주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는지 말입니다. 여기에는 인정받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었다. 다시 한 번, 두려움. 우리는 배 위의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을 받았다.

우리는 악마 군단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느꼈고, 이제 이 여자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기의 두려움은 분명히 두려움에 대한 구약성서의 생각, 옳고 적절한 경외심과 반응, 그리고 인간 영역에서는 의미가 없고 신성함에서만 의미가 있는 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의 상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마도 진실은 그녀의 증상과 그 증상이 있었던 기간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를 만지고 싶어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예수께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은 그녀의 불결한 상태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만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결함은 결코 순수함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청결에 대한 의식적 이해의 개념에서 누군가가 불결한 것에 만지면 불결해져서 의식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어떤 걱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나병 환자와 출혈성 질환을 앓은 여자의 경우처럼, 더 강한 것은 예수의 순수함이며, 불순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하고, 그는 그녀에게 “딸아”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누군가를 딸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곳입니다. 그것은 매우 부드러운 진술이며, 마가복음 2장에서 마비된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족적 친밀함, 가족적 친밀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여기 내 어머니와 딸과 형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방금 한 일, 즉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서 왜 그를 만졌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는 것과, 그녀가 이야기한 모든 것에 대한 예수의 응답, 당신은 이제 내 가족에 속합니다. 매우 다정하게 말씀하신 것 사이에는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이로와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야이로는 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간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마크와 샌드위치에 있는 고기, 말하자면, 그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평화롭게 가세요.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평화롭게 가는 이 생각에서요. 이제 여러분은 올바른 관계에 있고 더 이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그림 속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거기에 있었어. 나는 아마도 불안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 이런 지연이 있었기 때문이야. 네 딸이 죽었어.

왜 선생님을 더 귀찮게 하나요?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한 채,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군요.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던 배 속 제자들의 공포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은 두려워하고 예수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마크가 연결한다고 믿는 이 순간, 우리는 이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 딸에게 가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온 이유, 당신 문제의 해결책이 아직 상황에 의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폭풍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반대편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는 그들의 공황상태를 꾸짖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께서 반대편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의 딸에게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갈 거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있는데, 믿음은 신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두려움, 믿음/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그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특별한 세 사람이 분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명, 두 형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열두 명을 가졌지만, 이것은 안드레가 이 사건을 목격하도록 허락받지 않은 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는 회당장의 집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고 통곡하는 소동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애도가 일어났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소리가 크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화권에서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당신이 찾아와서 당신과 함께 애도하는 전문적인 애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종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도자들 중 일부는 가족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소동과 통곡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경은 폭풍과 비슷해 보입니다. 통제 불능의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모든 소동과 통곡이 있습니까? 아이는 죽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녀가 혼수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는 기술적으로 옳습니다.

아마도 이 잠은 잠과 죽음에 대한 언급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잠은 종종 죽음의 은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그녀가 죽었지만 예수께서 깨울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소녀가 실제로 잠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치유할 수 없는 의미에서 죽지 않았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모두 넣은 후에, 물론, 그 아이는 죽지 않았고, 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그룹이 울고, 통곡하고, 애도하는 것에서 웃는 것으로 바뀐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저는 감정의 즉각적인 전환이 그들이 진정으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애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감정적 전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받을 조롱에 대한 약간의 예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죽음에 대한 그의 권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받은 조롱, 이 소녀. 그리고 그가 그들을 내쫓은 후에, 그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와 함께 있던 세 사람, 즉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람어를 얻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람어를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람어인 Talitha kum을 얻습니다. 이는 어린 소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를 의미합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어린 양,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종종 어린 소녀에게 쓰이는 애칭이자 친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어다녔습니다. 그녀는 12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그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상호 연결에 대해 생각해 보니, 그 문화권에서는 12살이 되면 결혼이나 가족을 갖는 것이 고려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출산하고, 살아가고, 가족을 갖고, 12살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그 여성은 12년 동안 월경 출혈을 겪었고, 이제 그것도 회복되었고, 아마도 그것 사이에 비슷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는 엄격한 명령을 내렸는데, 저는 그것이 올해의 과소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엄격한 명령을 내렸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 있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미친 짓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부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열광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시 사항은 누구에게도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는 것, 즉 회복을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크가 문학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는 내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가장 터무니없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언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 침묵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표현으로, 언제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이해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답은 그가 이 소녀를 소생시키고, 지금 그녀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백부장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 전반에 걸쳐 그의 기적이 타락이 풀린 효과, 질병, 손의 회복, 악마의 소유, 그리고 이제 타락이 풀린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그 측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권위자와도 다른 권위자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락을 역전시킬 수 있는 권위자 말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세

사람은 그것을 목격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마가복음 2장,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신히 6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여섯 구절에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위대한 기적의 일꾼이자 교사라는 측면에서 큰 수용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고자 했던 귀신 들린 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들고 와서 치료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강하고 우화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어쩌면, 이야기가 조금은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해설자가 말했듯이요.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앞서, 물론 폭풍과 군단이 진정되고, 한 여성이 치유되고, 한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른 것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을 때, 1절,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그분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가 이전에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구약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경멸적인 진술입니다. 우리가 나사렛을 아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께서 거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다. 베들레헴은 그가 태어난 곳이다.
나사렛은 그가 자란 곳이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이것이
호의적인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의 가족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 어려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카버나움에서의 하루의 1장이
시작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을까요? 그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만큼 그가 받은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들은 카버나움
회당의 1장에서의 질문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권위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귀신들조차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은 놀랐다.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는 기적까지 행한다.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은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닌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요? 그의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두 질문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역적 기원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 관계는 강조됩니다: 마리아,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가 먼저 언급됩니다.

아마도 그는 가장 나이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교회의 고위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부정적인 인물로 연관되지만, 우리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신약성서 중 하나를 쓰도록 영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은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그가 목수의 아들일 뿐인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것은 흥미롭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셉의 죽음과 함께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예수가 주로 마리아와 함께 자랐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요셉의 출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질문들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이 마을이 자기네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들떠하는 대신, 자기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마가복음에서 그의 가족이 앞서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고향, 그의 친척들, 그의 집에서만 선지자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 진술의 어떤 버전은 고대 세계 전역에서 매우 흔합니다. 철학자들도 이 진술을 사용하여 이 위대한 연설가와 사상가들이 그들이 속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는 자신을 여기서 선지자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역사에 따르면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예수가 단순히 그의 고향과 친척과 그의 집, 마을과 그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들 전체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사실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매우 복잡한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고치는 것 외에는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의 부족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진술은 마태가 그것이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이라고 조금 더 분명히 밝혔을 때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마가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또는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진술을 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렛 마을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죠.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요? 몇몇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치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몇몇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치료하는 것은 이제 그 측면에서 낮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행동이었어야 했지만, 여기서 마가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행할 놀라운 일들 중 일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은 야이로, 출혈성 질환을 앓는 여자,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예수에게 온 마가의 다른 모든 인물들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또한 그것은 아마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점에 대한 무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그때 예수의 기적은 단순히 그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생성하고 믿음에 응답하기 위한 그의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여기서 주제는 나사렛의 거부가 매우 강하고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6장의 시작으로 인도합니다.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확장에 관한 6장을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마가복음 5:21-6:6, 야이로의 딸, 집에서의 거부입니다.